

AI산업 수익성 도마 위… “지속가능 혁명” vs “발 빼야 할때”

〈워런 버핏 등 낙관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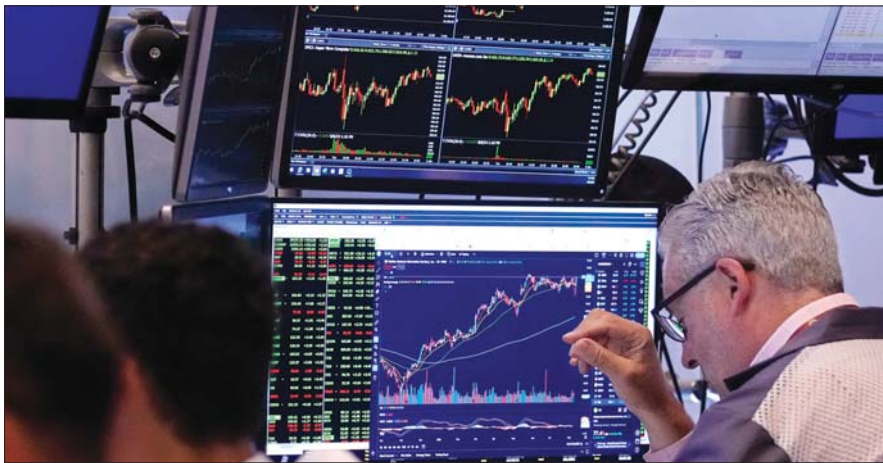
〈마이클 버리 등 비관론자〉

글로벌 투자 거장들 행보 엿갈려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관심집중
매출 전망치 549억弗… 56% ↑

“우리는 종종 거품과 마주한다. 때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승리 전략일 때도 있다”(AI 거품론자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업운용 대표 소셜미디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2000년(닷컴버블 시기)에 일어났던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AI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서다. 여기에 MIT 연구진이 낸 “AI 기업 95%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거품 논란 만큼 월가 큰 손들의 투자 행보도 극단적 행태를 보인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등 낙관론자들은 현재 AI 붐을 지속 가능한 기술 혁명으로 보고 보고 있다. 반면,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와 같은 비관론자들은 “곧 터질 거품에 불과하다”며 AI에서 발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모습. /뉴시스

을 빼고 있다.

◆ **틸·손정의·버리는 “엔비디아·테슬라, 너무 비싸다… 정점 근접”**

AI 버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고 본다. 미증시에 기술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현재 S&P 500 시가총액 34%가 기술 부문인데, 2000년 3월(33%)과 맞먹는 수준이다.

과열은 피치북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벤처캐피털 투자 절반가량이 AI 스타트업에 집중됐다.

미시간대 에릭 고든 교수는 “닷컴 버블 붕괴 때보다 더 많은 투자자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라클 등 일부 빅테크의 신용부도스왑(CDS) 거래는 수십억달러대까지 치솟고 있다. A

I 투자 속도가 실적 불확실성과 신용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미다.

AI와 거라두기를 하는 큰 손들도 있다.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최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득을 거두는 포지션에 베팅했다. 공시를 보면 억만장자 투자자인 피터 틸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틸 맥크로는 지난 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9400만달러(약 1375억원)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버리는 “이들 기업 주가가 이익 현실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팔란티어·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은 3분기에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규모는 1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테슬라 지분도 기존 27만여주에서 6만주 수준으로 크게 축소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도 최근 엔비디아 지분 8조원 규모를 모두 처분했다. 다만 오픈AI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어 ‘AI 회의론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버핏·피셔·드러켄밀러 “AI는 구조적 변화… 오히려 지금 구매”**

AI 버블론에 반대하는 쪽 주장의 핵심은 ‘수익’이다. 현재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이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여 준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약속’만 무성했던 닷컴 버블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가수익비율(PER)이 50배 넘었던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 현재는 20~30배로 낮은 편이다. 또 닷컴 버블 시대는 검증되지 않은 벤처가 투자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상당수는 수익을 내지 못한 채 현금만 소진했다. 반면 AI 시대를 이끄는 M7은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막대한 현금 흐름과 실제 수익도 만들어내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AI버블은 단지 새로운 기술 혁명이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대가들도 있다. 이들은 단기 모멘텀보다 “AI는 최소 10년 지속될 구조적 혁신”이라는 장기 방향성에 더 무게를 둔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발표한 10년 전망에서 AI와 신흥시장을 핵

심 메가트렌드로 규정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워런 버핏이다. 버크셔해셔웨이는 이번 분기 애플·BoA 지분을 줄였지만 알파벳 A클래스 주식은 약 43억달러(약 6조원3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입했다. 켄 피셔도 3분기에 알파벳 A클래스를 83만7893주 순매수하며 비중을 키웠다. 동시에 회사채 비중을 줄이고 미 국제 ETF로 이동해 ‘AI 베팅 + 리스크 방어’ 전략을 취했다.

헤지펀드 대가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아마존 9600만달러, 메타 5600만달러를 추가 매입했고, 9월 상장한 블록체인 결제 기업 피겨테크놀로지(FIGR)에 7700만달러를 투자했다. MSCI 이머징마켓 ETF(EEM)에도 1억달러 넘는 신규 포지션을 열어 AI·가상자산·신흥시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을 구현했다.

이제 전세계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경우 ‘AI 버블’ 논란을 잠재우고, 전세계 증시를 한단계 더 밀어 올릴 수 있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가 나온다면 AI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엔비디아 분기 매출 전망치는 549억달러(약 80조원)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준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1면 ‘韓 AI·수소·방산…’서 계속

“변동성 장세가 기회”… 개인, 반도체·빅테크 ‘줍줍’

국내·해외주식투자자들 순매수 증가
증권사, 삼성·SK 목표주가 상향 조정

직장인 이래연(46)씨는 지난 7일 삼성전자 주식 150주를 주당 9만4000원에 샀다. 1400만원이 넘는 돈이다. 그는 “10만 원 선이 깨지자 서둘러 매수했다”며 “지금 가장 싼때라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세금을 댄 월급 실수령액 500만원가량의 절반을 삼성전자에 투자해 왔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50~200주가량 사 모으는 식이다.

‘인공지능(AI) 공포’와 주가 과열 경고도 개미 군단의 진격을 막을 순 없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틈타 ‘줍줍’ 기회로 삼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도 반도체와 AI관련주를 사들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4조 9906억원, 삼성전자를 2조2551억원씩 순매수하며 압도적으로 많이 사들였다. 이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모두 순매수한 투자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다. 외국인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6949억원, 6조2237억원씩 순매도했으며,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 6060억원어치를 털어냈다.

전문가들은 ‘AI 거품론’ 속 변동성 장세에서 장바구니를 채웠다는 분석이다.

서학개미(해외주식투자자)들도 AI와 반도체 관련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달 들어 17일까지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빅테크, 반도체 종목들을 집중 매수했다. 메타 플랫폼스(5억5145만달러)와 엔비디아(5억1985만달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2억3197만달러), 아이온큐(1억8769만

달러), 알파벳(1억1984만달러) 등이 모두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다. 개미들은 메타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도 2억6695만달러 담았다. 미국의 팔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ETF도 4억3136만달러 담았다.

개미들이 판단이 맞을까. 토비 고너먼 퓨전월드와이드 대표는 “대형 서버 제조사나 데이터센터 건설 주체들은 이제(메모리) 제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가격 프리미엄이 극단적”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메모리칩 부족 상황이 심각한 터라 일부 고객들의 ‘패닉 바잉’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KB증권은 2026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을 올해(약 264조원)보다 107조원 늘어난 401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증가분 중 69%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할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은 15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중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 증권사는 전망을 더 밝게 본다. 모건스탠리는 이런 배경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재평가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4만 4000원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입 실패와 수요확대가 이어진다면 17만5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 73만원을 제시했다.

노무라증권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99조원으로 치솟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 TSMC를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김동관, 방산 세일즈 외교
조주완, 현지 협력 고도화

현대차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대차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주요기관 및 기업 등과 활발하게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IDEX 2025)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UAE를 찾은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주부터 현지서 ‘방산 세일즈 외교’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올해 상반기 중 동·북아프리카(MENA) 총괄법인을 설립하며 중동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화시스템은 2022년 UAE에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궁-II’ 다기능레이더를 수출한 바 있다. 이번 방산 외교를 통해 천궁-II 후속 물량을 비롯한 UAE의 중장기 전략에 맞춘 방산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사진)는 UAE 정부와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UAE에서 세계 최초 무선 OLED TV를 비롯해 세탁기, 건조기, 위시타워 등 인공지능(AI) 가전을 공개하는 등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 관계자는 “UAE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I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은 삼성, 현대차 등의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미래 산업 협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이창용 “韓, AI SW·HW 분야 모두 강해… 상대적으로 안전”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 ‘AI붐’ 지속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인공지능(AI) 산업이 강해 유리하다”면서 “AI 붐은 계속되며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범용 반도체 수요도 늘어난다는 점이 한국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핀테크 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했던 싱가포르에서 BBC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최근 AI 거품론에 대해 “설령 버블이 있고, 치열한 경쟁 속에 누가 마지막 승자가 될지 알 수 없더라도, AI 붐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성능 서버뿐만 아니라 더 작고 일상적인 기기에도 AI가 적용되고, 로봇이나 생활 제품에 AI가 결합되는

피지컬AI로 확장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기존 반도체 수요를 포함해 막대한 수요를 유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또 인터뷰를 통해 최근 한·무역 협상에 대해 “협정 체결이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제조 및 응

용기술 역량을 결합한 공동 벤처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을 사전에 앞당겨 실행한 덕분에 올해 상반기 수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더 큰 충격이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도 “무역 긴장이 발생하기 전부터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감지되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중심의 아시아 생산 체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고도 언급했다.

/뉴시스